

‘목소리’의 재현을 통해 실현된 자기 이야기의 역사화 욕망

— 1990년대 한국 김인숙과 타이완 구묘진(邱妙津)의
소설을 대상으로*

황 관 진**

요약

1990년대는 이념/탈이념, 집단/개인이라는 변화의 접합지점에서 있는 시대로서 페미니즘을 탄생시킨 기쁨비적인 시기이다. 특히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타의적인 방식으로 근대화와 접촉한 한국과 타이완은 계급과 민족적 문제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저항해야 할 대상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만이 아니다. 가부장제, 또는 가부장제와 유착관계를 가지게 된 이데올로기의 변모로 인해 여성들은 얼굴을 비추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공간과 욕망이 제한적으로 범주화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90년대 한국과 타이완의 여성적 글쓰기를 ‘욕망의 표출’로 조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쟁과 독재정권이 남긴 집단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타이완에서 페미니즘의 ‘재현’ 작업이 뒤늦게 본격화됐다. 김인숙과 구묘진은 비전형적인 여성성을 대변하는 작가로서 중산층 엘리트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자기 표현과 가시화의 기회와 씨름을 하는 것은 공통된 숙명으로 삼고 있다. 계급적으로 중심이면서 젠더적으로 주변인 현실 삶의 충돌은 그들 내면의 모순으로 전환되며 이중적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재정립의 욕망으로 발현된다. 김인숙은 후일담, 구묘진은 일기체/서간체 형식의 소설을 거쳐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 마음속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육연계사업 연구·교육연계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1-RE02). 본고를 섬세하게 평하여주시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의 일탈적 욕망과 에로틱한 육체의 쾌락 등 감정들을 대중들 앞에 나타낸다. 불순하고 젠더 '본질'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던 여성/퀴어의 은밀한 욕망은 '말'과 '몸'이라는 매개체를 경유해 형상화된다. 그들의 소설은 남성의 기준에 비친 '여성'과 차별화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전형적인 고백 서사의 효과뿐만 아니라 단일화되지 않게끔 탈집단화를 지향하는 욕망 충족에 치달게 된다. 여성의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본질론을 초월하는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재생산한다.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은 여성이라는 젠더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역사화 욕망을 형상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정치·문화 기반이 상이한 양국에서 현대 젠더문제를 대응하는 문학의 장을 재구성할 계기를 남겨준다.

주제어: 김인숙, 구묘진, 역사화, 목소리, 여성적 글쓰기

목차

1. 들어가며
2. 불/변(不/變)하는 현실과 엘리트 여성의 입지
3. '타자'의 실체를 현현(顯現)하기 위한 '소리'와 '몸'으로서의 글쓰기
4. 나가며

1. 들어가며

본고는 1990년대 한국의 김인숙과 타이완의 구묘진의 소설을 대상으로 자기 이야기를 역사화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이 문학적 글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발전론적 도식에 따라 쓰인 공적 역사는 승리자·남성 주체의 시각을 반영,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 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역사관은 '모두'를 포괄할 수 없으며 배제되거나 누락된 타자들의 존재를 더욱 주변부로 몰아냈다는 것이다. 특히 그 타자들의 대표로 지목할 수 있는 여성은 가부장제, 또는 가부장제와 유착

관계를 가지게 된 자본주의 등 이데올로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공간과 욕망이 제한적으로 범주화된다. 따라서 자신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른바 자기의 이야기를 ‘역사화’하고 싶어 하는 욕망¹⁾은 여성에게 특히 절실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역사화 욕망은 자신의 체험, 기억, 욕망을 공론장에 기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보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촉발된 근대 혹은 식민화의 역사를 공유한 동아시아-여성의 경우 한층 복잡한 맥락 속에 위치해 있었다. 식민지 경험을 공통적으로 지닌 한국과 타이완의 여성들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문제를 짚어낸 채 자신의 역사화 욕망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구식민지-전후 반공체제로 인해 그 역사화 욕망의 구체화가 이중적 굴절을 겪게 만들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구소련의 몰락, 민주화의 시작 등 외부 조건의 변화가 일어난 90년대의 여성 문학이다. 이념/탈이념, 집단/개인이라는 변화의 접합지점에서 있는 90년대는 과거에 대한 청산과 개별 주체를 위한 공간 마련이 동시에

1) 이 글에서 역사화란 자신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현재의 욕망이고, 이런 욕망이 일개인의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집단적 체험이 남긴 상처로 인해 생긴 욕망으로 밝히고 있다. ‘역사화’라는 어휘는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권력 주체가 만들어낸 보편적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곧 역사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기록 또는 역사를 남기는 수행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이지은은 하위주체를 ‘기억담론’을 통해 문학화한 김지하의 시를 대상으로 그가 가졌던 민중 발화의 열망과 역사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왔던 주체들을 재역사화시키는 시학을 조명해왔다. 한편, 김민수·오경환의 논문에서는 ‘감정의 역사화’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감정을 인간 내면의 신경학적 작용이나 사회 구조 혹은 사건의 반영물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와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수행적 관계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이 논문은 감정의 발화나 실천의 구조 자체를 역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역사화’의 계보를 한층 넓힌다. 김보경, 「기억은 헤게모니의 욕망에 어떻게 호출되는가: 후일담 문학과 『독학자』의 권력욕망」, 『당대비평』 28, 생각의나무, 2004, 131면. 이지은, 「7,80년대 김지하의 시학, ‘목소리’의 형식을 통한 ‘민중’과 ‘죽은 하위주체’의 역사화」, 『한국시학연구』 59, 한국시학회, 2019, 573-616면. 김민수·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28면.

진행됐던 시기이다.

한국의 경우, 탈이념·탈정치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쓸쓸함이나 절망을 표출하는 남성 386세대 작가에 의해 쓴 ‘후일담 문학’이 문단과 독서시장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듯 다소 변형된 후일담 문학을 펼친 386세대 여성작가들도 이 시대에 남성작가에 못지않게 각광받고 있었는데, 김인숙은 이 시기에 등단한 여성 작가 중 한 사람이다. 90년대 여성작가가 쓴 후일담은 민주주의를 향한 범세대적, 범계급적, 범성별적인 시대의 요청 속에 억눌려 있던 젠더 갈등을 표출시키는 고발의 글쓰기로 정의된다.²⁾ 실제로 김인숙은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젊은 여성의 자유분방한 성애를 그린 「상실의 계절」로 데뷔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민족·민중을 부각한 글쓰기를 통해 문학적 전향을 시도한다. 그리고 90년대에 『칼날과 사랑』(1993)과 『유리 구두』(1998)를 통해 창작의 노선을 다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적인 삶과 공적인 정치문제 사이의 균형이 그에게 중요한 화두였던 것으로 보인다. “386세대의 감수성-비판적 성향,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력, 주체적 삶의 자세, 도덕성 등의 잣대를 전제하면서도 지나치게 386세대를 내세우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³⁾는 평가처럼 김인숙의 작품세계는 후일담소설에 대한 전형적인 상상을 진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보편적 역사 경험을 해체하고 여성의 주체성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타자 이야기를 역사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편 90년대 타이완에서는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여성 주체성의 차별화된 인식에 착안한 서사들이 실험되었다. 미국이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한 1979년을 기점으로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는 획기적인

2) 김은하, 「살아남는 자의 드라마-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3-314면.

3)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김인숙, 공지영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6,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299면.

발전을 이루었다. 국민당 당외 정치세력 사이의 연대의 강화는 90년대의 전면적인 민주화를 가져왔다. 1987년 계엄령의 해제와 1990년에 발발한 3월 학생운동을 계기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은 정식으로 막을 내린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이루어진 타이완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은 중산계급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천광밍(陳芳明)이 지적한 대로 중산계급의 탄생과 정착은 정치 환경의 재편과 자본주의의 성숙은 물론 보다 개방적인 사상의 확산과 새로운 문학적 실천도 가능케 했다.⁴⁾ 특히 급변하는 정치경제 국면 속에서 신세대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한편 여성작가의 활약도 눈부시게 펼쳐졌다.

80년대 타이완의 여성 문학은 남성 중심 문화의 패권에 대한 도전과 국가·민족의식에 향한 회의를 주축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90년대로 계승되었다. 또한 ‘몸’과 ‘욕망’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서사를 통해 자아의식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한편 ‘국족’⁵⁾과 ‘젠더’를 둘러싼 정체성 탐구의 작업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⁶⁾ 특히 90년대 타이완 여성 문학의 특유한 현상으로 동성애자 서사의 부상과 자리매김을 주목할 만한데⁷⁾, 그

4) 陳芳明(천광밍), 『台灣新文學史(下)』, 聯經, 2011, 606-607면.

5) 1945년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타이완이 해방된 이후, 타이완을 접수한 국민당은 ‘중화민국’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의 주입은 70년대 이후 시작한 자본주의의 보편화 및 국제정세의 전환으로 인해 도전을 맞이했다. 민주화 물결과 함께 국가와 민족적 귀속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토화운동이 타이완 사회에서 열렬하게 펼쳐졌다. 이에 대해 대만 학술계에서 國族認同으로 일컬어왔는데, 여기서 국가 의식도 포함되기에 민족 정체성 대신 ‘국족’ 정체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90년대의 타이완 여성 문학은 정체성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정체성은 일관된 것이라기보다 늘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임은 작가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었다. 즉 같은 작가일지라도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작품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邱貴芬, 「戰後以來台灣女性小說發展概況(전후 타이완 여성소설의 발전 개론)」, 『台灣文學館通訊』 18, 國立台灣文學館, 2008, 62면.

7) 타이완 동성애자 문학의 시작은 1983년에 출판된 白先勇의 『孽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남성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과 달리 90년대부터 여성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서사의 중심으로 배치하는 문학들이 하나의 조류가 형성됐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 타이완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구묘진의 소설 외에 凌煙의 『夫聲畫眉』(1990), 朱天文

중 구묘진은 대만 퀴어문학의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⁸⁾ 그가 밝힌 ‘여성의 욕망’은 남성의 지위와 권력에 저항하겠다는 이항대립적 욕망에 벗어난 ‘정체성의 욕망’, 이른바 남녀대립의 근원인 성별 규범을 해체하는 욕망이다. 당대 타이완 여성 문학은 여성의 개인적 욕망을 충실하게 다루었으나 ‘모든’ 욕망이 용인되었던 것은 아니다. 구묘진은 ‘정상적’ 여성성을 소유한 자만이 사회와 문학 장에서 인정받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했다. 이로써 그는 타자 속의 타자를 빚어낸 젠더 인식의 이중적 폭력을 근본적으로 심문하고자 했다. 스물여섯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구묘진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향한 몰이해와 적대에 맞서 자기의 실존을 증명하는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한 글쓰기를 시도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악어 노트』(1994)와 『몽마르트르 유서』(1996)⁹⁾를 관통하는 비극성의 만연과 지속은 절망과 진지의 병존을 실현/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능하다.¹⁰⁾

이러한 특징은 김인숙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인숙은 트라우마

의 『荒人手記』(1994), 洪凌의 『肢解異獸』(1995), 陳雪의 『惡女書』(1995) 등 작품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소설들은 대중의 관심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면서 대부분은 문학상을 받아 문학성이 인정받기도 했다. 陳芳明(친팡밍), 앞의 책, 621-622면.

8) 퀴어문학 중 특히 여성동성애자를 겨냥하는 구묘진의 소설 『악어 노트』는 타이완에서 여성동성애자를 작품의 주제와 주체로 설정한 첫 번째 장편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라즈(拉子)는 근대 타이완에서 여성동성애자를 뜻하는 은어로 폭넓게 쓰이게 될 정도로 중국어 문화권에 영향을 미쳤다.

9) 두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구묘진, 방철환 역, 『악어 노트』, 움직씨, 2019.

구묘진, 방철환 역, 『몽마르트르 유서』, 움직씨, 2021.

10) 구묘진의 소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정체성 갈등의 지속으로 마무리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결말을 제시하는 것 등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당시 진행되기 시작한 동성애운동의 맥락과 거리가 있다. 紀大偉, 「發現鱷魚—建構台灣女同性戀論述(악어를 발견한 다-타이완 여성동성에 눈을 구축하기)」, 『晚安巴比倫—網路世代的性慾、異議、與政治閱讀(안녕 바빌론—N세대의 성욕, 이의와 정치적 읽기)』, 探索, 1998, 148면. 林鳳苓, 「依違於中心與邊陲之間(중심과 주변 사이에 의지하며 위반하기)」, 『女學學誌：婦女與性別研究』 28, 台大婦女研究室, 2011, 125면.

적 ‘증상’의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머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¹¹⁾ 정체성 회복의 차원에서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간에 김인숙과 구묘진의 문학에서 주변부에 배제된 여성의 발화 욕망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나아가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은 후일담과 일기체/서간체 형식을 활용해 여성의 내밀한 공간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김인숙과 구묘진은, 전형적인 여성성이 아니기에 제지당해야만 했던 타자로서의 장벽을 뚫고자 하는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더군다나 중산층 엘리트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자기 현현과 가시화의 기회와 씨름을 하는 것은 공통된 숙명으로 삼고 있다. 계급적으로 중심이면서 젠더적으로 주변인 현실 삶의 충돌은 그들 내면의 모순으로 전환되며 자신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재정립의 욕망으로 발현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남성이 점령한 시대정신을 전복하고자 한 여성작가의 일원으로 보이면서도 그들은 여성/여성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원시키는 메커니즘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의 소설은 남성의 기준에 비친 ‘여성’과 차별화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전형적인 고백 서사의 한계를 넘어서, 같은 표준에 따른 여성 집단으로 단일화되지 않게끔 탈집단화를 지향하는 욕망 충족으로 치닫게 된다. 김인숙과 구묘진의 작품은 여성이기에 경험하게 된 갈등들을 불평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결국 개인적 정체성을 성별화해온 젠더 담론의 본질론적 프레임을 짚어내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는 역사·정치·문화 기반이 상이한 양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결의 특수성에 입각함으로써 젠더 문제에 대한 여성 작가의 문학적 실천은 어떻게 ‘중심과 위계’를 경유하여 수행됐는지를 재조명할 것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1) 김은하, 앞의 논문, 334면.

2. 불/변(不/變)하는 현실과 엘리트 여성의 입지

80년대는 강력한 사회 변동 속에서 민주화를 향한 실천이 본격화된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탄생한 386세대는 단순히 80년대를 달궜던 데모의 주동자를 넘어서 그 후 새롭게 도래한 사회구조의 주축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80년대 정치 체도가 남긴 미완의 과제를 끌어안고 90년대에 본격적으로 펼쳐진 정보화·세계화·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변화의 지평으로 나아갔다. 80년대 초·중·후반의 학년에 따라 그 경험과 감수성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386세대는 대체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반공주의로 대변되는 박정희의 품에서 성장했고, ‘운동 세대’란 역사적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거시적인 억압, 고정관념의 해체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 집단 의식을 가졌다.¹²⁾

그러나 5·18광주민중화운동이나 1987년 6월항쟁 같은 ‘엄청난 사건이 만든 강렬한 경험’의 공유만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는 386세대를 정치적 성향이라는 매우 고정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¹³⁾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80년대를 함께 살아냈던 386세대의 ‘진정성’에 주목한 김홍중의 연구가 유용하다. 그는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진정성’이 형성되어 386세대의 세대 의식의 핵심을 구성하였고 ‘진정성’의 추구에는 정치 영역뿐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도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강렬한 항의, 비판, 참여가 동반된다고 주장한다¹⁴⁾. 경제나 정치

12) 김남옥, 앞의 논문, 274-278면.

13) 박소진, 「386세대와 젠더: 남성헤게모니와 386세대 여성」, 『비교문화연구』 26(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 13-14면.

14) ‘진정성(authenticity)’은 본래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의 실현이 대개 사회적 모순, 억압, 문제 등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고유한 욕망 사이에 형성된 간극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기 통치 기획의 한 양태로 나타난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21면.

의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변동을 접근하는 대신 제도적 변동에 연동되어 있는 사회심리의 체제로 확장시키기에 마음, 정서 또는 정동의 측면에서 386세대를 더욱 전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독립적 공간에 있지만 80년대 대학생이자 사회적 행위자로서 김인숙과 구묘진은 기존 제도, 관습, 권위에 부딪히며 새로운 대안을 재점검, 탐구하는 현장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성 작가는 80년대를 경유하며 몸과 마음에 새기게 된 비판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으로 형상화했을까? 당대에 대한 비판의식의 내화가 엘리트 여성이라는 매개체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이미지를 전제로 해왔던 386세대 담론 속에서 ‘같은 세대 내 여성’은 지워지거나 주변화되어 왔다.¹⁵⁾ 386세대 여성의 삶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물론 젠더적 위계 속에서 이중의 굴절을 겪어야 했다. 김은하의 분석을 빌리자면, 세상에 대한 견고한 이분법 위에 구축된 386세대의 배타성은 결국 기억의 재현, 그것도 집단에서 개인으로 전이되고 만 여성의 기억을 통해 비로소 심문에 부쳐질 수 있다.¹⁶⁾ 민주화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투쟁을 둘러싼 불꽃의 빛은 여성을 포함한 타자들이 위치한 자리에 비치지 않았다¹⁷⁾.

15) 386세대 담론을 젠더 관점으로 분석하는 박소진이 386세대 담론은 ‘남성 운동권 지식인’ 또는 ‘86세대 남성 정치인’으로 386세대의 범위를 전제로 하는, 불젠더성과 남성헤게모니가 가득한 담론임에 불과함을 제시했다. 박소진, 앞의 논문, 5-42면.

16)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54-55면.

17) 문학적 차원에서 1988년 창비와 문지의 복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문학과 문예를 중심으로 한 ‘문단 질서’가 다시 복귀되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여성문학은 문학의 주류적 경향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의미화하고 가치부여하는 차원에서 당대 문학 제도가 ‘지정’한 방식대로 국한되므로 누락과 배제가 허용된 환원론적 억압을 겪게 되었다.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제도적 차원의 경우, 90년대 이래 성폭력특별법(1993), 가정폭력방지법(1997) 등 여성 권력에 관한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법을 제·개정하는 데 피해자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에 자극받았던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불어 가부장적 가족생활이나 사회통념과 긴밀히 결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그 궤적은 타이완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됐다. 독재정권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타이완의 1990년 개나리꽃학운(野百合學運)의 이름부터 대학생이 데모의 주축이 된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386세대와 같이 세대 담론의 형성까지 이끌지 못했지만 타이완의 학운세대(학생운동 세대, 學運世代)¹⁸⁾와 이들 학생들의 시위 행동을 법정에서 변호해주던 변호사는 타이완 정치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¹⁹⁾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강요가 무효화되고 소비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역시 타이완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차이도 있다. 탈식민/포스트모던 시대²⁰⁾로의 전이 과정에서 타이완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나 연대에서 생겨난 범세대적인 국족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¹⁾ 그럼에도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급격한 사회변동 물

함되어 있는 호주제는 2005년이 돼야 폐지되었다. 정현백, 『연대하는 페미니즘』, 동녘, 2021, 70-85면.

- 18) 學運世代(학생운동 세대의 줄임말), 주로 1990년의 학생운동을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용어, 그 범위는 한국의 386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다.
- 19) 2022년인 현 시점, 여당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진당(民進黨)은 국민당 외에 타이완의 첫 번째 비공식 정당으로서 1986년에 성립되었는데 90년대의 학생운동의 주요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 대통령인 천수이벤(陳水扁)도 한때 학운세대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당시의 학운세대 중의 대다수는 나중에 민진당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로서 시장, 국회의원 등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 탈중심시대에 해당한 타이완의 8·90년대는 탈식민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포스트모던으로 봐야 하는지가 학술계의 쟁점이 되어 왔다. 천광명(陳芳明)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전자는 국민당이라는 고도의 권력지배구조에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후자는 세계화의 물결 아래 탈이념, 주체 및 경계의 해체 등 현상의 전면화를 예로 들어, 둘 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즉, 타이완의 20세기말은 탈식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포스트모던의 현상이 나란히 나타난 시기라는 것이다. 陳芳明(천광명), 앞의 책, 2011, 609면.
- 21) 일본 식민지 경험과 ‘중국(중화민국)’을 대변하는 국민당 정권의 통치를 겪어온 타이완 사람들의 민족의식은 ‘국가’ 정체성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도 다민족으로 구성된 타이완 사회는 국민당의 독재정권이 권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국민당이 표방해온 ‘중국(중화민국)’ 정체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타이완의 국가 정체성은 ‘중화민국’, ‘타이완’(중화민국은 국민당이라는 외래 정권이 가져온 국호로 여김), 아니면 ‘중화민국=타이완’(1949년 이전 대륙에 있는 중화민국의 역사를 인정하되, 그 후 타이완 본토 문화를 흡수하여 서로 융합한 국제) 중 어떤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 확정되지 못할 만큼 타이완 사람들 나름대로의

결을 거쳐 현 시대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한 386세대/학운세대의 경험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타이완에서 중산층 이성애를 중심에 둔 사랑·결혼·가정의 관념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린 채 발전해왔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된 후부터 남녀평등을 목표로 법률, 교육과 이데올로기 등 차원에서의 여성운동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그 범주가 매우 제한적이다. 유량아(劉亮雅)의 언급대로²²⁾ 90년대부터 (여성)동성애자 운동이 여성운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출발했지만 퇴폐적이고 에로틱하다는 주류사회의 혐오 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울러 페미니스트 사이에도 노선과 운동 목적의 가시성 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주변부 속에 또 다른 경계선 갖기의 문제에 포섭되었다.

386세대의 배타성이든 이성애 중심의 이분법적 젠더 상상이든 김인숙과 구묘진은 ‘정상적’으로 상상되는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체성 갈등을 겪던 여성 엘리트의 경험을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김인숙과 구묘진에게 엘리트 출신이라는 신분은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타자의 정체성과 충돌하며 부채의식을 자아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권위주의적 지배구조에 수긍하지 못한 채 그 집단 의식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적 정체성이 계속 외면될 가능성을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트인 동시에 여성/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은 김인숙의 후일담소설과 구묘진의 퀴어문학의 음조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그들은 엘리트로서 질서의 갱신이나 변화를 향한 흐름에 동참했으며 동시에 ‘여성’인 자기에게 주어진 고정적 위치와 젠더 역할의 부조리를 성찰했다. 이

국족의식도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22) 반-에로틱과 성해방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진 당시 타이완의 여성운동에서 동성애자운동은 성해방 쪽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성욕)에 관한 논변이 복잡하게 촉발되며 동성애 혐오를 보이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모습 또한 목격되었다. 劉亮雅, 「世紀末台灣小說裡的性別跨界與頹廢(세기말 타이완소설 속의 트랜스젠더와 퇴폐)」, 『中外文學』 28(6), 1999, 112-113면.

때문에 빚어진 공적인 자기와 사적인 자기의 괴리가 당대 엘리트 여성에게 부과된 질곡이라 할 수 있다. 속으로는 깊은 분열을 겪으면서 밖으로는 중심이나 주변적 존재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지점에 배치되는 ‘엘리트 여성’의 입지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심정의 변화와 외적 규범의 불변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도록 했다. 실제로 90년대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에서는 시대적 기호들이 비록 서사의 주축으로 내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이끄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엘리트 출신 여성 인물의 내면적 갈등의 흔적이 늘 확인된다. 작품 속에 시대적 맥락과 어울리면서 충돌하는 엘리트 여성의 내면 서사는 이러한 갈등과 정체성 인식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김인숙의 소설은 과거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비친 자아 성찰을 테마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8,90년대의 풍경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풍경」(1996)과 「바다에서」(1996)는 대학 시절 데모의 현장에 나갔던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면, 「당신」(1992)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고민 끝에 가담한 남편을 두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내인 윤영은 이념이 대변되는 도덕성과 현실 삶의 생계 문제, 또한 정치적 탄압에 대한 두려움 사이 갈등이 가득한 내적 싸움을 의도치 않게 벌이게 된다. 「당신」에서 삶의 전부를 내걸 정도로 이념을 지향한 변화를 꿈꾸는 개개인의 결심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자신을 벼랑 끝까지 밀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자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²³⁾고 자각하게 된 주인공 윤영의 심정에 대부분의 편폭을 할애함으로써 남성(남편)이 피하는 ‘변(變)’의 매끄러운 진행을 지탱하기 위해 가정의 ‘불변(不變)’을 유지해야만 하는 여성의 이중적 좌절을 드러낸다.

「풍경」과 「바다에서」는 시대의 절대성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혁명의 주체였던 ‘그녀’의 기억을 활용하고 있다. 「풍경」에서 작가이자 주부인 주인

23) 김인숙, 「당신」,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3, 91면.

공은 십오 년 만에 혼자서 떠난 여행에서 부조화로 채워진 자신의 삶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된다. 「바다에서」에서, 여성소설가 ‘나’는 10년 만에 동창생인 J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과거에 대한 반추에 폭 빠져든다. ‘나’와 J의 관계는 ‘나’가 대학에 들어와 운동권 여학생이 되면서 멀어져갔는데, 일체성보다 양극화를 의미한 데모의 실체를 필연적 상실감과 함께 깨닫는 내러티브가 주축이 된다. 또한 「유리 구두」(1993)는 “광장에서의 열정은……그 열정에 바칠 가능성은, 이제 없어”²⁴⁾라며 삼십 대의 가능성이 섹스말고 아무 데에도 없다는 유선의 한탄을 담고 있다. 이들 386세대 여성들의 고백은 격변의 시대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벌어진 역사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몽개져버린 젊음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일기체와 서간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묘진의 소설에서는 시간의 표기가 서사 자체에 시대성을 첨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7월에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서술자의 기록으로 시작된 『악어 노트』는 주인공 ‘나’의 대학 시절을 일기라는 틀에 녹아들게 하면서 일상의 흐름에 달라붙는 자신의 애욕, 상처, 제어 불가능한 감정의 광란을 빠짐없이 담아낸다. 따라서 서술자의 독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다툼 내지 성관계를 물 흐르듯 써내려가는 가운데 「다이아몬드 무대」²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한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대중문화의 요소들이 곳곳에 함축되어 있다. 구묘진 작품세계 속의 ‘나’는 김인숙 소설 속 대부분의 주인공처럼 자유에 한 발짝 가까운 다채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가령, ‘악어’의 행적을 추적하는 단락을 뉴스를 내보내듯 느닷없이 배치함으로써 사람의 껍질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타자(특히 여성 동성애자)의 처지를 은유한다. 이것은 바로 ‘나’가 시대와 불화하

24) 김인숙, 「유리구두」, 『유리구두』, 창작과비평사, 1998, 30면.

25) 구묘진, 방철환 역, 『악어 노트』, 움직씨, 2019, 231면. 「다이아몬드 무대(鑽石舞台)」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타이완에서 방영된 일요일 대형 예능프로그램이다.

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악어족의 직업 범위를 특정 관광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거나 “악어의 사회적 자원이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공제해”²⁶⁾야 한다는 서술 등은 모두 알레고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이런 알레고리의 기입은 여성 동성애자를 희화화, 비인간화한 이성애 사회의 배타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해 보건대 김인숙과 구묘진 작품에 나타난 동요와 불확실성은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를 단순히 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공적 영역’에 깊은 애착과 욕망을 보이면서 중심과 주변 사이의 간극에 절망하는 이들의 소설 속 여성 인물은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마치 『악어 노트』에서 자신의 성적 도착 정체성으로 일반적인 엘리트와의 부조화를 느끼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엘리트 신분을 인식하는 ‘나’의 모습처럼 말이다. 불안과 초조함의 극대화는 전형적이지 않는 타자로서의 ‘엘리트 여성’ 특유의 것으로 표현된다.

김인숙이 그린 여성 인물과 구묘진의 텍스트 속 성 소수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대와 함께 전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거시이념을 저항하는 진영에 합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이분법적 규정의 계승을 전제로 금기되어온 존재를 계속 감금시키는 ‘진보’와 집단화의 강화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제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이란 내가 누구인가, 여기가 어디인가를 질문하는 것밖에 없으며, 허구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와 같은 자아 성찰은 작가의 실제 삶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명확한 회답이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김인숙은 자기를 드러내는 소설을 썼고 구묘진은 죽음을 택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역사화 욕망을 어떻게 글쓰기로 표현했는지 작품 분석을 통해 3장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내겠다.

26) 『악어 노트』, 299-300면.

3. ‘타자’의 실체를 현현(顯現)하기 위한 ‘소리’와 ‘몸’으로서의 글 쓰기

정치 해방을 이룬 세대 공동체의 번두리에 밀려난 타자로서 김인숙과 구묘진은 ‘갈음’의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비판의식은 거듭 강조하듯이 역사화가 허락되지 않는 정체성을 표출하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을 형상화하기 위해 허구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서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은 서사이며, 서사는 언어와 더불어 서술자를 매체로 하²⁷⁾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서사는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이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을 통과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때의 서술자는 텍스트 속의 화자를 지칭하는 동시에 화자를 창작해 낸 텍스트 외부의 작가와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쓴다는 행위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작가는 ‘화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90년대 김인숙과 구묘진의 텍스트에서 활용되는 초점화와 표현의 방식은 은폐되었던 여성 인물의 목소리를 들리는 기능을 발휘했다. 이러한 창작 전략은 특히 후일담과 일기체/서간체라는 형식을 거쳐 텍스트 밖과 안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환히 비추게 만들었다.

1) 386 여성 후일담과 일기체/서간체가 보여준 목소리의 복원과 퍼짐

80년대에 대한 경험의 구체적인 서사화대신 그 기억들에 의해 촉발된 우울, 정서의 응집과 정체성 방향의 상실은 김인숙의 후일담소설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넘쳐흐르는 감정을 안치할 곳이 없는 386세대 여성의

27) 한일섭, 『서사의 이론: 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21-24면.

신경쇠약 증상을 털어놓음으로써 남성 후일담의 결을 달리한 여성적 이야기의 재현을 실현시켜 정전(正典)적 역사의 이면을 밝혀내는 데 기능한다. 이와 함께 1인칭 서술자의 고백이나 남성 서술자 혹은 작품 외부의 작가-서술자를 경유하여 여성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는 초점화의 변주가 김인숙의 후일담 소설의 변별점이 되기도 하다. 이러한 서술 방식의 변화는 텍스트 속 여성 인물의 목소리와 더불어 특정한 젠더에 국한되지 않는 ‘입’을 빌리려는 작가의 발화를 담아낸다. 결국 후일담과 발화 욕망의 만남은 주체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정서가 아닌, 과거와의 교섭을 통해 분출 또는 포착하게 된 여성의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목소리’를 받아쓰기 하듯이 재현하는 일기체/서간체²⁸⁾의 형식은 여성의 목소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신의 체험을 풀어내는 장치로 가능하다. 일례로 편지 쓰기는 여성들의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삶을 드러내면서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서전의 경우, 순전히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이기에 자기 자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며 내면성을 ‘살피는’ 데 기능하기도 한다.²⁹⁾ 이처럼 자서전적 일가와 편지는 덜 전형적이고 덜 통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김인숙의 후일담소설과 일기체/서간체로 구성된 구묘진의 90년대 소설은 여성의 글쓰기를 공적 담론으로 끌어내는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겸양과 순종, 인내와 체념의 언어 형식을 벗어나 욕망, 정열과 분노의 ‘진정한 언어’³⁰⁾를 실현시키고 있다. 90년대는 여성성을 ‘집단화된 권력지향의 욕

28) 『악어 노트』와 『몽마르트르 유서』는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자는 구묘진의 대학 시절을, 후자의 경우 파리로 유학을 간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9)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154-180면.

30)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2-13면.

망’에 반대하는 ‘개인의 내밀한 실존적 욕망’에 대응시키고 있다는 논설이 쏟아진다. 80년대적 문학과와 단절과 전환으로 90년대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이분법적 문학 구도가 결국 다양한 문학적 경향과 글쓰기의 성격을 이분법적 구획 속에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³¹⁾ 역사적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 ‘주체로서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은 순연한 여성 내재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의 결과물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일상/이념, 내면/현실, 개인/사회가 연결하고 소통하며 관계 맺는 다양한 삶에 대한 고민이 고인 결정체이다.

예컨대 김인숙의 소설은 혁명에 실패한 세대의 트라우마를 담은 문학임에도 역사에 대한 죄책감을 나르시시즘적 향수 충동과 연동하면서 과거를 영웅의 시간으로 구조화한 386 남성 세대의 후일담과 분명히 다르다. 혁명 현장에 사적인 욕망과 고뇌의 침묵이 강요됨에 따라 찾아온 상실감과 정체성의 좌절 때문에 과거 자기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되찾으려 하는 이야기 흐름이 그 차이 중에 하나다.³²⁾ 386세대 여성에게 80년대의 기억이란 자랑스러운 영광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일원답게 나서야 할까, 여성이라는 타자적 정체성답게 수동적으로만 움직여야 할까 내적 혼돈을 겪는 모순적 존재에 가깝다. 그렇기에 그녀들의 후일담에는 데모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은 기회를 노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악몽의 자태로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심층에 잠복하고 있다.

「유리 구두」의 화자는 남성이지만 깊은 애착관계를 나눈 유선과 함께

31)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6년 가을, 서영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문학은_위협하다』, 민음사, 2019, 78-79면 재인용.

32) 이 때문에 운동의 이력을 영광의 훈장 삼아 90년대 이후 현실에 편입된 386세대 남성과 달리 386세대 여성들은 90년대 지나더라도 온전한 귀속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남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이 나오지 않은 데 비해, 전경리, 공지영, 공선옥 등 여성작가들의 후일담이 지속적으로 산출되어 있음은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김은하, 앞의 논문, 50면.

젊은 시절의 추억에 발목을 잡혔다. 슬픈 표정으로 쇼윈도 안의 유리 구두를 바라보는 유선을 우연히 마주치면서 “그 시절 그들은 교정에 서린 최후탄 가스 때문에 항시 누선을 자극받았지만 올 때는 눈으로 우는 것이 아니었”으며 “실연 따위 때문에 그렇게 슬퍼 우는 여자를 그는 그 시절의 기억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³³⁾고 ‘나’는 생각한다. 유선에게 안긴 유래 없는 선망 어린 서글픔은 불안이나 불확실성으로 얼룩져 있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유리 구두를 신을 수가 없다는 유선은 자신에게 신데렐라라는 동화는 최초의 절망을 주었다고 고백한 적 있다. 이때의 유리 구두는 규범에 맞는 젠더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신체 조건과 더불어 사적인 욕망과 개별화된 개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80년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자기의 발에 맞는 유리 구두를 찾고 신고 말 가야 결심했던 유선에게 자신만의 정체성이 인정받았으면 하는 욕망은 시대가 바뀔음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의식 속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가 진단하듯이 절망과 분노의 시대에 젊음을 바쳤던 그 시절의 기억들은 앨범 속에 갇혀버렸고 그 기억의 소유자는 그저 추억 밖의 세상에 던져져 있었다. 80년대는 386세대를 버리고 사라졌지만 그 열정의 온도가 유선과 ‘나’의 영혼 속에 그대로 남겼다. “이 세상에 유리 구두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것은 남과 같으나, 남과 다르냐, 남보다 나으나, 남보다 못하냐이지”³⁴⁾라고 유선은 외친다. ‘유리 구두’의 실존에 대한 불신보다 삶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과거와 현재 사이라는 진공의 시간대에 절망으로 응결되어 있어, 현실에 작용할 힘을 점차 잃게 만든다.

‘나’와 ‘그녀’라는 두 개의 시점을 번갈아 교체하면서 구성된 「풍경」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병치함으로써 선형적으로 발전되어 온 시간의 원칙을 해체하여 현시점에 침윤한 과거 기억의 무게를 다루고 있다. 아내

33) 「유리 구두」, 14-15면.

34) 「유리 구두」, 30면.

와 어머니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 여행을 감행한 ‘나’는 나이 스물에 떠나던 여행의 궤적을 따르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을 차츰차츰 거슬러 올라간다. 지루하고 부당했던 십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자신의 스무 살이 너무나도 찬란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때 만나던 겨울 바다의 황금다리를 떠오르고 산속의 폭포를 찾으려는 집착에 빠져든다. 스무 살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자리는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때”³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던진 시대에 한때 상처였고 부끄러움이었으나 그녀의 눈물을 숨겨주었던 것이 다름 아닌 글이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때’를 빼놓고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십대를 잃어버린 삼십대”와 같은 비유를 쉽게 승인하고 싶지 않다. 이를 통해 그 시절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글을 쓴다는 것을 둘러싼 욕망의 분출과 억눌림의 괴리에서 온 깊은 좌절과 방향이 확인된다. 과거에 그 누구도 그녀에게 글을 쓰는 일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그때’를 끝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였다.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엇갈리는 감정을 조리 있게 정돈하기 위해 그녀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외진 곳까지 왔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편, 자서전적 소설의 특징을 띤 「바다에서」는 주인공을 괴롭혀 온 트라우마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J와는 친밀에서 소외로 변해 버린 과정을 반추하는 화자인 그녀는 그 전환점이 대학시절의 ‘그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데모에 몰두했던 그녀와 달리 J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순진한 J를 보고 자신에게 데모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그녀는, “타도해야 할 적보다도 타도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었던 그 젊음이 좋았”³⁶⁾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80년대에 데모에 나간 사람들이라면 한번 정도 겪었을 유치장 생활을 그녀도 역시 경험한 바 있지만 그 열흘간의 구금생활이 오히려 그녀에게 소설을 쓰고 싶다는 각오

35) 「풍경」, 96면.

36) 「바다에서」, 251면.

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의심과 낭만이 허용되지 않은 ‘그때’였기에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말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수치스러워 해야 했다. 이십대 때 그녀를 향한 비난을 감당하다 못해 ‘무리’ 속으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선택을 하게 됐다. 그것은 그녀를 감춰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세계에 살아왔던 J는 그녀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새로 알게 된 혁명의 세계에 의해 이런 심정을 부정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러간 뒤에야 그 양극화된 시절에 욕망이 억제되고 이름마저 망각한 병적인 정신상태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집단적 의식의 주입으로 일어난 정신적 분열 상태에서 깰데도 J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던 J는 지금도 추억에서도 존재하지 않아 그녀만 홀로 남긴다. 그때의 기억과 촘촘히 얽히고 있는 감정의 파편들로 점철되어 있는 바다에서 그녀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묘진의 『악어 노트』는 자서전적 소설과 일기체에 속하고, 『몽마르트르 유서』는 스물 편의 편지로 구성되는 작품이다. 주인공의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된 『악어 노트』는 “1991년 7월 20일, 교무처 행정실 창구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문장부터 시작해 일기의 형식을 통해 사 년 동안의 대학 시절을 학기별로 나누어 짜여 있다.³⁷⁾ 노트1, 노트2...와 같은 식으로 장절을 배치함으로써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 ‘나’가 보고, 느끼고, 갈등하는 대로 적어놓으며 그 내용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독자가 읽게 하는 작가의 의도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노트에 들어간 내용은 규율적인 시서(時序)보다 주변 사람들과 관

37) 노트1(제1장)의 끝부분에 ‘이 수기는 제1장이 되는 셈이다. 기록 시기는 1987년 10월부터 1988년 1월까지이다, 또는 ‘열 권짜리 일기 자료에 근거해 어린이 그림책 같은 여덟 권짜리 소책자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타이완의 학기제는 한국의 봄 학기제와 달리 가을 학기제이기에 신입생에게 9월부터 1월까지의 대학의 제1학기에 해당한다. 『악어 노트』, 53-54면.

계 맺는 과정과 그런 과정에 촉발된 ‘나’의 정신·육체적 반응과 내면으로 추동된다.

소설의 시작에는 “예전에 나는 모든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이 저마다 여성에 대한 ‘원형(原型)’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나의 내면 깊이에 자리한 원형도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³⁸⁾는 서술이 제시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으로 선망하던 선배 수령을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 복원할 수 없는 ‘나’의 분열이 예고된다. 이러한 과정을 ‘나’의 독백으로 재현함을 통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내재한 인식론적 모순이 만들어낸 열등감과 불안정한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주홍 글씨와 다를 바 없는 죄업과 배제의 낙인이 찍힌 채로” 수령에 향한 ‘나’의 애욕은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령과 결별하는 결정에 이르르게 되었다. 자신을 향한 수령의 사랑은 사회제도에 따른 ‘정상적’ 여성으로서 “음성적 어미의 몸으로 사랑하는 것”³⁹⁾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결국 수령의 사랑은 자신의 도착적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성적 정체성 ‘규범’을 위반하는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혐오와 추방이라는 자발적인 징계가 생성된다.

일기체의 형식은 이처럼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 한 여성의 자기혐오, 충돌과 좌절을 절실하게 살리고 있으며, 독자를 하여금 화자로 대입시킴으로써 애욕과 증오가 얽히는 동성애자의 고된 심정을 실감나게 경험하도록 한다. 작가 구묘진의 화신인 ‘나’는 노트에 기대어 글을 경유해서 자신의 ‘악어’ 껍질을 벗기는 것이라면 독자들은 『악어 노트』를 읽어 내리면서 ‘악어’라는 두껍고 무거운 탈을 직접 쓰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불편과 우울, 또는 배제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견디면서 탈 밑에 숨겨진 개체는 결국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것이다.

38) 『악어 노트』, 18면.

39) 『악어 노트』, 201면.

다른 한편으로, 구묘진의 유작인 『몽마르트르 유서』는 헤어진 애인 솜에게 보낼 편지, 화자 자신의 일기와 수기, 트라우마의 과잉에 시달리는 날들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영에 보낼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구와 현실을 교차하는 텍스트로서 이 소설은 불온한 ‘뛰어넘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리 분석적 접근이나 철학적 언어의 변증법적 구현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이 소설은 해석의 몫이 작가가 아니라 독자에게 맡겨지는 구묘진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⁴⁰⁾ 시작부터 화자인 ‘나’는 연인 솜과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타이완과 파리라는 장거리 연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름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자기부정을 하는 ‘나’를 서사의 중심에 앉힌 『악어 노트』와 달리, 『몽마르트르 유서』 속의 조에는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예와 솜 사이의 불화와 조예를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데 사회의 도덕적 관념과 이분법적 배제를 범인으로 지목해야만 한다. 즉, 광기에 휘둘려 히스테리 적 붕괴 상태에 빠진 조예의 영혼의 파멸은 자신이 세계를 직면했는데 세계가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환멸’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자신에 향한 세상의 악의를 날카롭게 반격하는 대신 『몽마르트르 유서』에는 영혼의 순수함, 사랑의 진솔함과 욕망의 진귀함을 반복적으로 논증하는 고백의 언어를 택하고 있다. “세상에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부서지기 쉬운 내 영혼에 있겠지. 도처에 널린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오래도록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⁴¹⁾고 고백할 만큼 절망의 극대화를 전시한

40) “만약 이 글이 출간된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읽기 시작해도 괜찮다. 글을 쓴 시간상 연관성 외에 내용 구성간의 필연적인 연관성은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선언 같은 문장은 책에 기재되어 있다. 林孟潔, 「遺書其後—從邱妙津書信體小說『蒙馬特遺書』, 『邱妙津日記』與賴香吟『其後』討論邱妙津其人(유서 그 후—구묘진의 서간체소설 『몽마르트르 유서』, 『구묘진 일기』와 賴香吟의 『그 후』를 통해 작가 구묘진을 접근하기), 『文化研究月報』135, 中華民國文化研究學會, 2012, 40면.

41) 『몽마르트르 유서』, 15면.

다. 사회, 가정 내지 개인으로 만연된 억압적이고 차별된 정치·문화 제도는 ‘옴’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탄생시켰다는 것이 이를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사랑의 가벼움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세상의 물이해를 연약한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조예의 진정성이 이러한 ‘옴’을 문학 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무너뜨린 듯하다. 유서를 남기고 나서 더 이상 모습을 비추지 않은 조예와 현실 세계에 생명을 끝맺은 구묘진의 순수한 영혼이 그녀의 글과 함께 독자들의 마음에 굶은 한 획을 그었다.

개인의 깊은 내면을 꺼내어 드러내는 일기체/서간체는 허술하거나 난잡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틀’의 규칙을 어기고, 의식을 말로 튀어나오는 대로 언어화하기에 정체성의 ‘현신(現身)’을 더욱 진실성 있게 돋보인다. 더불어 화자를 포함한 등장인물을 작가의 생각을 대신 발화하는 아바타로 만들며 저자의 목소리를 소설 도처에 울리게 함으로써 고백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일기체/서간체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자는 독자가 스스로 일기를 쓰는 화자로 대입시키며 후자는 독자를 발신자와 수신자의 자리에 입장을 교차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몽마르트르 유서』가 출판되면 읽기의 순서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구묘진에게 문학은 생명을 위한 홀로 하는 독백이었을지 몰라도 ‘내가 쓰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는 자신의 존재라도 들려주면서 독자와의 환위를 요청하고 있다.

2) ‘말’과 ‘몸’을 거쳐 재생산된 여성의 욕망

글로 표현된 언어의 범위 안에 여성의 존재가 허락받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배제론에 맞서, 말하기와 읽기 또는 쓰기 모두가 젠더로 특징화되는 것은 과연 적당한지 일레인 쇼윌터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⁴²⁾ 쇼윌터

42) 일레인 쇼윌터, 김열규 역,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34-39면.

의 지적대로 사실상 이념적이고 문화적으로 자신의 언어와 문체를 창출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여성의 고투가 문체성의 장치, 이미지 패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남성적·헤게모니적 서사를 대상으로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에서 ‘말’과 ‘몸’이라는 두 개의 표상을 거쳐 여성 언어의 전복적 가능성을 촘촘하게 구현한다.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을 살펴보면 개인의 본모습을 ‘고백’을 경유해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의 대화와 서술문을 통해 구현된 인물과 서술자의 고백은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심는 표상의 일부이며 작가의 ‘말’을 형상화하는 결과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언어화되는 범위에 대화는 물론 단순한 서술문에도 ‘고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의 ‘말’이 소설에 와서 어떻게 말하게 되는지가 이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텍스트에서 똑같이 ‘말’을 구현하는데도 대화와 서술문의 분량이나 배치의 차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과 내면 감정의 굴절을 현현하고 있다. 후일담과 일기체/서간체라는 문체는 개인의 사적인 기억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체와 결부하면서 파생되는 ‘발화’에 대한 방법론적 전략은 ‘공감’을 일으키는 기억과 감정의 현현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김인숙의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발화가 막히는 상황과, 화자의 의식 흐름에 따른 자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 서술 방식과 만날 수 있다. 「당신」 속의 여주인공 윤영은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내심 불평하면서 그런 초조함을 남편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만 감당해 왔다. 남편과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부르짖는 남편 때문에 “여보, 난…… 내 생각은……”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장면⁴³⁾과 학생을 감시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하다 쫓겨난 남편을 보고 “잘했어. 잘 그만뒀어”

43) 「당신」, 71면.

라는 말을 며칠이나 지나서야 꺼내게 되는 지연⁴⁴⁾ 등을 통해 도덕과 현실의 대립으로 수동적인 위치를 고수하며 무력감에 휘말린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다. 가정의 유지와 남편에 대한 걱정, 또한 자신의 도덕성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좌절감이 일으킨 혼란을 인내만 해야 하는 윤영에게서 ‘말’을 하는 능력이 박탈된다. 말문을 뿜 수 없는 윤영의 곤경은 여성에게 사회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전가함으로써 정신과 신체에 이중적 억압을 가한 새로운 시대성에서 비롯된다. 결말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말은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재현되는 것처럼 윤영, 즉 그 시대의 여성은 남녀에 대한 이분법적 역할의 경계가 도전받았음에도 독립적 정체성의 확립을 욕망하는 데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한편, 같은 자전적 소설에 속한 「풍경」과 「바다에서」에서 서사의 시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풍경」은 ‘그녀’라는 삼인칭 시점과 ‘나’의 시각을 취하는 일인칭 시점을 번갈아 교체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그녀’라는 시각으로 J와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소설은 대화나 실질적인 말의 전달을 되도록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는 대신 화자의 독백으로 대부분의 변곡을 채우고 있다. 「풍경」에는 과거를 기억해 내는 과정을 거쳐 현시점에 위치한 자신에 내재한 감정의 변화를 위주로 형상화하기에 타인과의 대화, 즉 ‘말’의 등장이 제한적이다. 「바다에서」도 기억 속 J와의 대화를 제외하면 ‘그녀’의 생각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그때, 우리는 참 아름다웠어. 그렇지 않니?”라는 ‘그녀’에게 건넨 J의 말로 막을 내린 「바다에서」, 사라져 버린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J의 짙은 존재감은 자신의 모습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았던 과거에 향한 후회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J가 지금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로 ‘나’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지는 ‘나’의 궁극적 과제로 남는다. 김인숙은 말/대화를 아끼거나 말을 자신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듯한

44) 위의 소설, 74-75면.

독백을 넘쳐흐름으로써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또는 그럴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386세대 여성을 둘러싼 억압적 환경의 연속을 부각해낸다. 그에 반해 말을 다듬지 않는 채로 내보낸다는 것은 구묘진에게 상처를 가한 세상과 싸움을 벌이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지만 내면 발화라는 식의 ‘말의 표출’을 택한 김인숙의 전략에 비해, 구묘진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소통이나 다툼을 담은 대화는 물론 내면 서사를 구사할 때 어떠한 대상을 두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화가 넘치는 구묘진 소설의 특이점은 김인숙의 소설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독백으로 서술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재현하고 있음에도 대화와 자술의 비율적 차별을 보이는 김인숙과 달리 구묘진 소설은 누구를 향한 대화인지 단순한 자기 고백의 서술인지 헷갈릴 정도의 ‘말’이 혼잡하게 얽히고 있다. 이러한 서술법의 혼용은 자서전적 성격과 결부하여 서술자 뒤에 과잉 발화하는 작가의 그림자를 짙게 드러낸다.

『악어 노트』는 ‘나’를 둘러싼 일상을 있는 그대로 써 내리면서 무심결에 튀어나온 진심어린 고백이나 마음속을 스치는 순간적인 감정을 소설의 말로 재현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중요한다”는 것 같이, 자신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수령에게 보낸 편지와 몽생, 탄탄, 지유와 수범 등 ‘나’와 심리적 병통을 공유한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를 또한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수령에게 보낸 편지로 구성되는 노트 5-3에서 성 정체성 인지의 문제로 수령을 떠났다는 ‘나’의 선택을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랬던 자신의 비겁함을 후회하는 ‘나’는 정신과 몸이 준비되어 있다고 다시 선언하면서 수령과의 재결합을 요청한다. 여기서 “나는 이제 무자격의 점막을 벗고, 죄책감도 죽음의 물결에 휩쓸려 보내고, 약간의 열등감만을 지닌 채 너와 맨몸으로 포옹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는 말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고통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잠복하는 진실한 애욕을 재조명하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한다.

『악어 노트』의 곳곳에 점철되어 있는 ‘말’들은 이성애 규범을 넘나드는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생산되고 있다. 탄탄과 사랑에 빠지면서 두려움에 깊이 휘말리게 된 지유, 완전히 ‘여자’로 변했고 더 이상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유를 대할 용기가 없다는 탄탄, ‘나’와 진심 섞인 유희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과 초광 사이의 병적인 감정적 갈등으로 괴로워한 끝에 마약 중동자로 변해 버린 몽생. ‘나’의 생활에 나타나는 존재들은 결국 ‘나’와 똑같이 ‘단일’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분열, 굴복, 포기를 아프게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은 항상 다언어체(polyglot)라고 보는 바흐친⁴⁵⁾의 주장에 따르면 『악어 노트』에서 구체화된 ‘나’의 언어는 정체성에 관한 병통을 공유한 이 사람들 없이 완전하지 못한 언어이다. 특히 자신의 성적 도착(倒錯)을 직면하지 못했다는 친구들의 고백과 이에 대한 ‘나’의 응답은 곧 화자가 자신에게 외치고 싶은 말로 간주할 수 있다. 몽생의 타락을 보고 “왜 너는 완전히 너 자신을 던지지를 못해? 왜 누구와도 진정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아?”⁴⁶⁾라는 외침은 몽생에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요구의 울부짖음이다. 남성적 언어의 특징인 ‘규율성’을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구묘진의 수다스러운 언어 체제는 퀴어의 욕망에 실린 무게를 증명해준다. 그리고 일기체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말을 과도하게 들리는 경향은 ‘나’의 독백으로 소설을 관통하는 『몽마르뜨르 유서』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될 수 있다. 자신의 얼굴을 타인의 앞에 나타내는 매개체로서 서신은 자신을 전시하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만남을 성사시키며 발신자를 주체화하는 데 작용한다고 푸코가 지적한 바

45) 바흐친은 내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개별적이고 사적인 자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접촉하게 되는 많은 자아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사회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란 그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와는 대체로 동의어인 것이고, 이데올로기의 집합체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언어를 물려받고 있으며 다성복합(polyphony)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웨인 C. 부스, 김열규 역, 『해석의 자유: 바흐친과 페미니스트 비평의 도전』, 『페미니즘과 문학』, 1988, 131-132면.

46) 『악어 노트』, 350면.

있다.⁴⁷⁾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편지를 쓰는 과정은 곧 구묘진이 자신을 주체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주요 수신자 솜과 발신자인 ‘나’의 대화, 또한 결국 솜이 대응되는 독자들에 향한 ‘나’의 스토리텔링이 소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열다섯과 열아홉 번째 편지는 솜의 시각으로 조에에 대한 깊었던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서로에 대한 의심, 불안과 다툼을 서사화한다. 그러나 솜의 말은 과연 조에의 의지와 무관한 말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는 솜이 직접적으로 집필한 답장보다 조에의 그림자가 드리운 편지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몽마르트르 유서』에서 조에를 죽음으로 몰리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솜은 실제로 허구적인 존재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⁴⁸⁾. 이것은 작가/조에의 말의 분량을 두꺼워지게 만드는 혼성의 전략을 겨냥한 구묘진의 서사 방법으로 읽힐 수 있다. 『몽마르트르 유서』에서 재현되는 ‘말뭉침’은 솜의 배신을 원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아를 재구축하도록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증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네 갖가지 배반과 사랑 없음은 정도가 어떻든지 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며 몸과 영혼이 합치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창작하겠다는 조에의 결심처럼 영적인 소통이 막히기에 생겨난 솜과 조에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서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화해’를 통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화해’란 솜에 대한 원한의 완회이자 사랑을 증오로 덮으려던 조에의 내적 절망을 스스로 와해시키는 것이다. 비록 ‘유서’라는 제목과 현실에 죽음을 선택한 구묘진의 행동으로 작

47) 푸코, 汪民安 편, 『自我書寫』, 『福柯讀本』, 北京大學出版社, 2010, 341-348면.(『The Foucault Reader』, Vintage Books, 1984)

48) 구묘진 사후에 출판된 『구묘진 일기』(2007)의 내용에서 ‘솜’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자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적으면서 소설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다. 朱芳玲, 「一種關於死亡的生存美學—邱妙津《蒙馬特遺書》的愛欲與書寫(죽음에 관한 생존의 미학—구묘진 『몽마르트르 유서』의 애욕과 서사 전략)」, 『東海中文學報』 第30期, 東海大學中國文學系, 2015, 88면의 각주16 참조.

가/조에 실현하고자 하는 ‘화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죽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영원한 예술로 승화하는 해석⁴⁹⁾이 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은 상처를 입지 않을 생존을 상징하며 발화를 통한 자기 형상화를 거쳐야 생존의 미학이 완성된다.

생물학적 이분법에서 규정된 모성, 아름다움, 부드러움 등 전형적인 여성성에 어긋날 경우 일탈적이고 타자화된 존재로 주변화된 여성들의 역사가 역력하다.⁵⁰⁾ 그러나 몸이나 성을 자연주의나 본질주의적으로 다루는 담론과의 구별 짓기는 점차 시도되고 있는데, 지식과 권력의 상호작용을 논의하면서 신체를 권력 행사의 주요 거점이자 하나의 사회 제도로 간주해야 한다는 푸코의 주장이 그것이다. 신체는 그때그때 고유한 역사적·장소적 조건에 규정되어 역사화되며 나아가 표준화를 향해 진행되었다는 재맥락화는 푸코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⁵¹⁾ 그리고 권력에 관한 푸코의 이론에 분석의 틀을 제공받은 페미니스트들은 현실적으로 성차별적 성격을 갖는 기율 권력의 작용 상의 차이를 제기하기 시작했다.⁵²⁾

몸에 행사되는 권력의 역사·문화성을 일삼을 때 여성의 몸을 빼놓을 수 없다. 예컨대 여성들에게 생산 이외의 욕망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몸을 거치는 욕망을 느끼고 해방시키는 행동 자체가 이분법적 섹슈얼리티의 울타리를 이탈하는 도전이 된다. 그런 까닭에 여성의 성욕을 가시화하거나 ‘몸’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대목이 현대 여성소설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몸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구묘진의 소설에 비해 90년대 김인숙의 소설들은 몸에 관한 소재가 나오고 있지만 정신적인 감정을 분출시키는 데 경유하는 매체로

49) 위의 논문, 112-113면.

50)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20-23면.

51) 미셸 푸코, 황정미 역,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우치다 타츠루, 이경덕 옮김,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등을 참조할 것.

52) 황정미, 「푸코/페미니즘/모더니티」, 앞의 책, 253-257면.

주로 부각되고 있다. 광장에서 불타올랐던 열정이 자취를 감춘 뒤 자신의 존재 의미가 함께 퇴색돼 버린 「유리 구두」의 유선에게 섹스에서 얻는 잠시의 쾌락은 아직 살아 있는 증거이자 데모 때처럼 몸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실감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섹스를 아무리 해봤자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자기와 그러한 자기로부터 내뿜는 열정을 받아들이는 소속이다. 이러한 유선의 욕망은 섹스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배덕의 이미지를 통해 실현되며 여성에게 가한 사회적 괴리를 더욱 파급적으로 인식시켜준다. 한편, 「그림 그리는 여자」(1995)에서 투영된 ‘그녀’의 몸은 남성의 이중 기준에 편입되고 있으며 주체로서의 욕망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표상으로 묘사된다. 현묘양처라는 틀에 여성의 몸을 박혀 놓고 술집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던 남편의 행위에서 가부장제에 의해 굳어진 젠더적 권력구조에 자유롭지 못한 여성의 몸이 비쳐진다. 대학 졸업 이래 그림을 그리는 열정이 식었음에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강요당해 온 탓에 절망을 느꼈던 ‘그녀’는 자신의 전신상을 담은 화판과 화지에 뜨거운 성욕이 자극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전시된다. 자신의 몸은 남성중심적 욕망에 맞춰 그려져야 하는 화지 같은 존재였지만 자신에 의해 그려지기를 원하는 욕망의 폭발과 함께 몸은 비로소 ‘그녀의 몸’으로 재탄생된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상적’ 상상이 실천되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욕망에 충실한 몸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그녀’만의 권력의 장이 된다.

이분법적으로 범주화된 섹슈얼리티의 강제성을 밝히면서 몸과 욕망의 자주권이 응당히 여성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김인숙에 비해, 구묘진의 소설에서 몸에 대한 욕망은 퀴어의 정체성을 인식해주고 검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이성애 틀은 젠더를 남성성/여성성으로 분할하고 전복적 패러디로 수렴되는 문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기술과 설명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³⁾ 이성이애가

구축한 젠더 체계는 섹스·젠더·욕망 사이에 이분법적이며 인과론적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동성에 관계에 이러한 젠더 체계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악어 노트』에서 수령을 향한 ‘나’의 모순적 욕망은 이성애적 매커니즘에 재생산된 이원론을 내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령과 사귀었던 동안 자신을 수령의 몸을 극도로 원하는 ‘괴물’⁵⁴⁾로 비유하면서 괴물로서의 ‘나’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자백을 담은 편지를 수령에게 보낸다. 여기서 표현된 ‘자격’이란 남성을 대표하는 ‘남근’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수령의 ‘젊은 아버지’로 자신을 언급하거나 수령을 향해 나의 ‘양성(陽性)의 몸’을 드러낸다는 서사를 통해서도 짐작된다. 그러므로 남근이 없는 ‘나’는 자웅 동체의 미를 지니는 정체성과 남근 부재의 결합에서 온 자괴를 두고 늘 자아 분열을 되풀이해야만 한다. 『악어 노트』의 ‘나’를 『제인 에어』의 로체스터와 대비시키면서 여러 시련과 괴로움을 배치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령의 사랑을 검증하는 ‘나’는 이성애적 소비니즘의 지배욕과 구박 경향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⁵⁾ 이와 더불어 수정으로 만든 관에 ‘오염’되지 않는 수령을 영원히 보존하고 점유⁵⁶⁾하고자 하는 ‘나’의 자백도 사냥하고 죽이는 능력으로 상징되는 남성의 ‘초월성’⁵⁷⁾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53)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212면.

54) “괴물의 손으로 너를 안고 애무했으며, 괴물의 입으로 너에게 키스했고, 괴물의 욕망으로 뜨겁게 너의 몸을 원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에 대한 어떠한 그림자도 없이 순수하게 보는 너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잔인하게 나를 마모시키고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거야.”, 『악어 노트』, 198면.

55) 劉亮雅, 「愛慾, 性別與書寫: 邱妙津的女同性戀小說」애욕, 젠더와 글쓰기: 구묘진의 여성성에 소설, 『中外文學』 26(3), 1997, 國立臺灣大學外國語文學系&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2-13면.

56) “세계에 대한 나의 자각은 내게 이 여성과의 분리를 선택하게 했으며, 나는 다시 그를 죽여 수정으로 만든 관에 넣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관계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도피해 영원히 그를 보존 또는 점유하는 것이다.”, 『악어 노트』, 186면.

57) 산드라 길버트, 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78-79면.

한편 구묘진의 소설에서 몸과 성의 문제는 연인과의 육체 결합을 둘러싸여 자아의 자율적 주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애욕의 부조화로 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되기에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실패하자 병적인 정신의 광란을 아프게 앓는 플롯은 『악어 노트』와 『몽마르트르 유서』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된다. 『악어 노트』에서 ‘나’와 유일하게 섹스를 한 소범과의 관계는 “마치 세기말에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생명감을 향유하듯”⁵⁸⁾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나’가 서술한다. 소범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의 문제와 별개로 소범을 사랑하는 ‘나’의 영적 욕망과 섹스를 경유한 신체적 욕망이 하나로 합치게 된다. 자신을 이용하는 소범의 잔인함으로 ‘나’의 마음에 칼과 같은 굴욕이 새기더라도 소범의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나’의 모습에서 수렁을 대하는 과거의 ‘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자기의 양성적 기질로 인해 균형을 잃은 정체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몽마르트르 유서』에서 조에로부터 성욕을 느끼지 않고 성 관계를 거부하는 솜의 태도는 삶, 몸과 영혼의 융합을 갈망하는 조에와의 불일치를 극대화시켰다. 성적 욕구가 전반적인 에로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신체 기관의 차이를 불문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자신의 성적 욕구는 남성이 여성을 욕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조에는 생각한다. 따라서 외적인 적대의 시선으로 한없이 괴로워한 끝에 저지르게 된 솜의 배반도 문제이지만 서로에 대한 성욕과, 삶에 관한 욕구가 교집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과정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리고 솜과의 결별을 계기로 로렌스와 만나게 된 조에는 활동적인 ‘양’과 수동적인 ‘음’의 결합이 해방으로 통한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성의식을 새삼 깨닫게 된다. 양성적 기질을 지닌 자신이 음성적인

58) 『악어 노트』, 288면.

여성을 욕망하는 것을 줄곧 진리로 수용해 온 조에는 자유분방하고 강한 역량을 함축한 몸매를 가진 로렌스를 지극히 욕망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을 탐하면서 조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 한계를 깨뜨렸다. 여성의 특유한 관능적인 미를 풍기는 로렌스에 매혹되는 조에는 오르 가슴에 도달하게끔 인도하는 로렌스의 뜨거운 열정에 흠뻑 빠진다. 이때 조에는 비로소 정욕이 인간의 젠더처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다 다른 대로 젠더 정체성을 탄생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 욕망의 주체로서 대상과 위치가 수시로 바꾸게 되는 조에의 리얼한 경험은 이원론적 젠더 규범을 뒷받침해 온 생물학적 관점의 지배적 권력을 무너뜨린다. 퀴어의 불온성과 변별성은 경계의 폭력성을 들이침과 동시에 그들의 앞장서는 전복성을 증명해준다.

몸이나 애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서 젠더/섹슈얼리티의 ‘본질 없음’을 강조하려는 구묘진의 서사 핵심을 접할 수 있다. 두 소설의 화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욕의 좌절, 실현과 전향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핵심과 다소 멀리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도 이분법적 구도를 타도하는 데 일조한다. 『악어 노트』의 지유와 탄탄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아무런 기호가 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한 감정을 공유했을 뿐이다. 이성애적 메커니즘이 빚어낸 경계는 실제로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은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을 동시에 욕망하는 지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몽마르트르 유서』에서도 “육체는 육체일 뿐 사람을 끌어당기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육체면 되지 무슨 남성의 몸, 여성의 몸 구분이 있냐”⁵⁹⁾라는 그리스 출신 안도니스의 말 때문에 조에가 젠더의 다양성과 육체, 욕망의 순수성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 앞에 생리적 성별과 심리적 젠더 구분의 불필요를 증명한 지유와 탄탄의 교제와, 육체에 대한 욕망의 여러 가능성을 서슴없이 열거하는 지유와 안도니스의 발언을 통해, ‘남녀’라는 양분화

59) 『몽마르트르 유서』, 216면.

로 구성된 저울이 내적 안정성을 잃게 되면서 절대적 가치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헤게모니가 분명하게 노정된다.

4. 나가며

여성들의 삶이 잘못 재현됐거나 전혀 재현되지 못했던 전반적인 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을 완전히 혹은 적절하게 재현하는 언어의 개발은 여성의 정치적 가시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⁶⁰⁾ 버틀러가 지적 하듯 재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을 비롯한 다른 타자에게 시급한 과제이고 삶의 궁극적인 지향일 수도 있다. 본고는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개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녀들의 욕망을 귀에 담아본다. 나아가 문학이라는 장치를 경유하여 386세대 여성과 트랜스젠더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는 역할을 맡고자 한다.

서양 백인 중산 계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던 페미니즘의 ‘재현’ 작업은 한국과 타이완에서 전쟁과 독재정권이 남긴 집단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뒤늦게 본격화됐다. 그런 까닭에 한국의 김인숙과 타이완의 구묘진의 90년대 소설을 병치시키는 것은 가부장제의 작용만으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젠더 권력 구조를 파헤치는 유효한 통과의례가 될 것이다. 여성 386세대인 김인숙의 소설 속 여성들은 출입이 허락된 광장으로 진입하지만 목소리가 고향에 가려지면서 이분법적 단성의 정체성으로 환원된다. 알고 보니 해방의 시대가 아니라 열정으로 위장한 억압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녀들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80년대를 살아온 그녀들에게 90년대는 경쟁 지상주의의 만연으로 ‘개인’의 위치가 결국 생물학적인 조건에 따라 분배되는 시대로서 다가온 셈이다. 역사의 흐

60)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85면.

를 속 정치적 주체로 가시화되려는 여성의 꿈은 남성이 주도한 ‘기록’의 표준화에 의해 좌절된다.

이렇듯 김인숙과 구묘진은 이분법적 젠더 체계와 극단화된 경쟁 구조 속에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여성/동성애자를 주목하게 된다. 거시적 서사의 퇴조에 뒤따른 미시적 서사의 전성기로서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90년대에 그녀들의 역사화 욕망은 실체가 감춰진 것과 성도착의 죄명을 씌운 정체성의 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로부터 쏟아진 적대와 혐오, 또한 내적 분열이라는 이중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고투에 성 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비록 각자 안고 있는 과제가 일치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편파적으로 재현하는 역사에 거부를 표하려는 의지는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 때문에 소설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기록할 목적의식은 두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엘리트 여성이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비판적 정신이 장착되게끔 하는 동시에 ‘엘리트’와 ‘여성’의 모순적 조우로 인해 이러한 역사화 욕망에 변수와 계기를 안겨준다. 자신의 욕망을 도착적인 것으로 인식하기에 괴로워하는 변수이며, 인정되지 못할수록 이러한 욕망의 가시화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이다. 이 같은 충격에서 태동한 각성은 규범화·위계화에 재생산된 폭력적 통제와 불화하는 ‘남다름’을 일종의 정상으로 수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김인숙은 후일담, 구묘진은 일기체/서간체 형식의 소설을 거쳐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 마음속의 갈등, 회의, 좌절, 상실, 절망, 또한 일탈적 욕망, 에로틱한 육체의 쾌락 등 감정들을 대중들 앞에 나타낸다. 불순하고 젠더 ‘본질’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던 여성/퀴어의 은밀한 욕망을 ‘딸’과 ‘몸’이라는 매개체를 경유해 형상화한다. 초점화된 여성 인물의 내적 발화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소통이나 다툼을 담은 직접적인 대화, 즉 ‘딸’의 분량을 조절함으로써 김인숙은 386세대 여성이 당한 이중적 타자화를, 구묘진은 퀴어로서 내·외적 정체성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

의 주체적 욕망을 부각한다. 이와 함께 두 작가의 글쓰기에서 고정적인 의미화를 벗어나 이분법적 젠더화의 지배를 복종하지 않는 ‘몸’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규범화를 거부하는 ‘말’에 대한 자주적 활용과 도덕적으로 구속되는 ‘몸’의 재현을 개방적인 향유의 의지를 내포한 성애 묘사로 치환하는 전략으로 ‘중심과 위계’를 교란시키는 여성의 수행성은 소설에서 분명하게 읽힌다. 그 결과, 과도하게 한쪽에만 쏠린 기존의 재현 방식은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순수화로 변신하게 되고 본질을 초월하는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삶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재생산한다. 역사·정치·문화 기반이 상이한 김인숙과 구묘진의 소설을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보편화할 것을 경계하면서 젠더 문제에 관해 비-전형적인 여성 정체성의 실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두 작가의 절실함을 읽어 내줄 필요가 있다. 이로써 그녀들이 자신만을 위한 역사를 쓸 수 있으며 은폐되어 온 욕망은 다시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이야기의 역사화 욕망을 실현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본고의 해석은 작가 구묘진의 생애와 문학을 박제화 해버렸다는 한계가 배제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죽음을 종결이나 소멸로 간주하는 것은 관행적 사유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몽마르트르 유서』와 그 후 발굴된 구묘진의 일기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가 그녀의 궁극적 이상이었음은 거듭 확인된다. 현실 삶에서 죽음을 선택한 그녀에 대해 그 진정한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생명 내지 죽음을 개인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제는 생명의 특정한 순간을 동결하고 단일적인 의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나뉠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존재했다, 목소리를 내었다는 증거를 내보이는 글쓰기는 김인숙과 구묘진이 ‘삶’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살아가기’와 ‘죽음’은 다 실존을 증명하는 일종의 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인숙과 구묘진이 실천한, 중심과 위계를 허무는 포용적인 문화적 실

힘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원론적 젠더 위계의 폐쇄성과 악순환은 종식된 것처럼 보일 때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경제·문화적 정세로 다시 찾아온다. 마치 미투운동에 힘입은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한국과, 정치 당파 ‘색깔’의 대립으로 젠더 문제와 성 소수자의 실질적 권익이 도외시된 타이완은 이제 코로나19 시국이란 교차점에 만나게 된다. 배제가 언제 다시 덩벼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살길은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익숙한 대로, 주어진 규칙대로 스스로를 범주화하지 말아야 하는 ‘뛰어넘기’와 ‘열어젖히기’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것은 김인숙과 구묘진은 우리 앞에 전개시킨 욕망의 ‘말하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역사가 그저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역사에 부재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험의 실존이 다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당대 여성의 삶의 조건과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 관한 확장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인숙,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3.
김인숙, 『유리 구두』, 창작과비평사, 1998.
구묘진, 방철환 역, 『악어 노트』, 움직씨, 2019.
구묘진, 방철환 역, 『몽마르트르 유서』, 움직씨, 2021.

2. 단행본

- 김열규 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경수,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학사, 1996.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김원식, 『배제, 무시, 몰화-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사월의책, 2015.
권보드래의 12명,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미셸 푸코, 황정미 역,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산드라 길버트, 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소영현외 12명, 『#문학은_위험하다』, 민음사, 2019.
우치다 타츠루,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한일섭, 『서사의 이론: 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紀大偉, 『晚安巴比倫—網路世代的性慾、異議、與政治閱讀』, 探索, 1998.
福柯, 汪民安 編, 『福柯讀本』, 北京大學出版社, 2010.
陳芳明, 『台灣新文學史(下)』, 聯經, 2011.

3. 논문

- 김보경, 「기억은 헤게모니의 욕망에 어떻게 호출되는가: 후일담 문학과 『독학자』의 권력욕망」, 『당대비평』, 생각의나무, 2004, 131-140면.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화적 형상화-김인숙, 공지영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271-303면.

-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주변인으로서 글쓰기」,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99-114면.
-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3-78면.
- 김민수·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28면.
- 박소진, 「386세대와 젠더:남성헤게모니와 386세대 여성」, 『비교문화연구』 26(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 5-42면.
- 오태호, 「상실의 사랑에서 기억의 회복으로-김인숙론」, 『작가세계』 24(2), 세계사, 2012, 59-79면.
- 이철승,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한국사회학회, 2019, 1-48면.
- 이지은, 「7,80년대 김지하의 시학, ‘목소리’의 형식을 통한 ‘민중’과 ‘죽은 하위주체’의 역사화」, 『한국시학연구』 59, 한국시학회, 2019, 573-616면.
- 정홍수, 「실존의 글쓰기, 목숨의 글쓰기」, 『창작과비평』 26(3), 창작과비평사, 1998, 368-378면.
- 한상진, 「탈인습 세대의 형성과 분화-사회변동 주체의 탐색」, 『사회와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7-48면.
- 황순재, 「일상적 삶과 감춰진 세속적 욕망-김인숙 소설집 『칼날과 사랑』(창작과비평사)」,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1993, 211-221면.
- 劉亮雅, 「愛慾, 性別與書寫: 邱妙津的女同性戀小說」, 『中外文學』 26(3), 國立臺灣大學外國語文學系&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997, 8-30면.
- 劉亮雅, 「世紀末台灣小說裡的性別跨界與頹廢」, 『中外文學』 28(6), 國立臺灣大學外國語文學系&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999, 109-131면.
- 邱貴芬, 「戰後以來台灣女性小說發展概況」, 『台灣文學館通訊』 18, 國立台灣文學館, 2008, 58-62면.
- 林佩苓, 「依違於中心與邊陲之間」, 『女學雜誌: 婦女與性別研究』 28, 台大婦女研究室, 2011, 107-131면.
- 林孟潔, 「遺書其後—從邱妙津書信體小說『蒙馬特遺書』, 『邱妙津日記』與賴香吟『其後』討論邱妙津其人」, 『文化研究月報』 135, 中華民國文化研究學會, 2012, 36-41면.
- 朱芳玲, 「一種關於死亡的生存美學—邱妙津《蒙馬特遺書》的愛欲與書寫」, 『東海中文學報』 第30期, 東海大學中國文學系, 2015, 85-118면.

<Abstract>

Historization of Self-narrative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Voices’
– A Case Study of Kim In-sook
and Chiu Miao-chin’s 1990’s Novels*

Huang, Kuan-chen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of ‘voice’s expression’ in Kim In-sook and Chiu Miao-chin’s 1990’s novels to find out how the women’s desire be illuminated through the feminine writing. Feminism’s representation work began late in Korea and Taiwan to overcome the collective crisis left by the war and dictatorship. Considering this historical background, it is an important issue to focus on the feminine writing of Korea and Taiwan in the 1990s.

Kim In-sook and Chiu Miao-chin, as writers representing atypical femininity, had a common fate of wrestling with their dual identity while enjoying the opportunity to visualize themselves as middle-class intellectuals without abandoning their status as elite women. Therefore, the conflict of real life, in which about their central position of cultural class but also marginal in the social system, turns into a contradiction within them and manifests itself as a desire to explore and re-establish one’s identity. Kim In-sook and Chiu Miao-chin express emotions such as deviant desires and erotic physical pleasures in people living on the margins of society through later-talked and diary/epistolary novels.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nt(AKSR2021-RE02).

secret emotions, which were considered impure and violated the so-called gender ‘essence’, are embodied through the narrative about ‘words’ and ‘body’ expressed by the writer with imagination. Their novels not only have an effect on typical confession narratives that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female’ reflected in men's standards, but also fulfill the desire for de-collectivization. By representing the woman's own story as it is, it has successfully reproduced the pluralistic and fluid identity that transcends essentialism. Kim In-sook and Chiu Miao-chin's novels focused on shaping women's desire for historization, not in the gender status, but as an autonomous human being. Based on this, it leaves an opportunity to reorganize the field of literature in both countries to respond to modern gender problems as a third world.

Key words: Kim In-sook, Chiu Miao-chin, Historization, Voice, Feminine Writing

투 고 일: 2022년 1월 28일

심 사 일: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3월 20일